

2025 추석 가정예배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같이
기도		가족대표
성경봉독	시편 57:7 (구약843면)	인도자
설교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설교자

✚ 본문말씀

7절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소소한 좋은 일이 있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일도 역시 많았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뿐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많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추석을 맞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형편에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편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라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마음을 확정한 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사나 찬송을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시편을 고정하고 감사와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추석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언가 감사할 조건이 많다면 그대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니 슬프고 힘든 일만 다가오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확정하여 나간다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감사와 찬양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찬송과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상관없는 분이 라면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오히려 두려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확인된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위대한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되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 마음을 확정하길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확정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송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같이
폐회	주기도문	다같이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